

전라선 2027년께 SRT 운행될 듯

SR 측 열차 구매사업 진행...평택-오송 '복복선화' 끝나야 가능 전남도 "전라선 KTX 증편, SRT 도입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

전라선에 이르면 오는 2027년께 수서발 고속열차(SRT)가 운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SRT 운영사인 주식회사 에스알(SR) 측이 진행 중인 고속열차 구매 사업이 완료되고,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이 함께 오가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27년께 전라선 SRT 투입이 가능해진다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전남도의회에서 진행된 도정질의에서 "정부에 전라선 SRT 투입과 KTX 증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기(순천2) 의원이 "전라선(익산-순천-여수) 이용객이 폭증해 주말이면 표를 구하

기 힘들다. SRT 도입이 언제쯤 가능하나"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전라선 SRT 관련 문답은 질의시간 부족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전남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광주일보에 더 구체적인 도입 전망치를 공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우선 SR 측은 현재 열차 구매 사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5년을 전후해 열차 구매는 완료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평택-오송 구간 46.4km의 복선(상·하행선)을 복복선화(상하행선이 각 2개)하는 사업이 끝나야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SRT 운영사인 SR은 열차 32편성(1편성은 객차 10칸)을 운행 중인데, 이 가운데 22편성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해 쓰면서 전라선에 신규 투입할 형편이 되지

않다. 이에 공기업으로 분류된 SR 측은 현재 열차 14편성을 구매하려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중이며, 행정절차 및 열차 제작 등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5년이면 열차 구매 절차는 완료된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그러나 경부고속선과 호남선이 모두 오가는 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이 현재 병목 현상을 빚고 있는 점이 문제다. 해당 구간에는 일 최대 190회 열차 통과가 가능한데, 현재 176회(93%)가 운행하고 있다. 더 열차가 증편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커지게 돼 정부는 해당 구간을 복복선화하는 사업을 올 초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평택-오송 구간 복선화사업이 오는 2027년께 완료되는 일정"이라며 "복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일 최대 380회의 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전라선 SRT 투입은 그때나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서민·노동자 위한 강한 무기될 것"

전 국민이 행복한 정치 펼 것
임대주택법령 개정 우선 추진
여순사건 억울한 마음 풀여줘야
변하지 않은 사회 보며 정치 참여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55)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당선인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을(乙)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싶다. 서민, 노동자, 여성, 장애인, 어린이와 노인, 지방 시민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 당선인은 20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도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 탓에 오랫동안 자기 지역구 챙기기, 지역 예산 따내기가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물론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도 정치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며 "하지만 전환경 급식 관련 법안이 우리 아이들 전체의 밥상을 건강하게 바꾸듯, 지역구민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행복을 우선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지역구 선거와 관련해 서 당선인은 "이번 총선 승리는 제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바람들이 모였다고 믿는다"며 "약자에게 힘이 되는 법을 만들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우대받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라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에서 활동해온 서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을 꼽았다. 서 당선

은 "우리 지역의 변호사로서 해 온 활동과 핵심 공약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우선해 추진하고 싶은 것은 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이라며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성 및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자격 규정 등 관련 법규의 미비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제때 못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막고 임대주택 본래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했다.

지역의 여러 현안 가운데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우선해서 풀여보고 싶다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여순사건은 72년이 지나 유족들조차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억울한 마음을 풀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 당선인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전남 동남권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단일인을 만들

고,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여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 당선인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청년 시절에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했던 이유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시민들의 소박한 꿈과도 다르지 않다. 모든 시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갑질을 당하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보통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촛불시위에도 나갔지만 쉽게 달라지지 않는 사회를 보며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됐다"고 털어놴다.

이어 "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개별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법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자체를 바꾸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사회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뜻을 더욱 다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방문했을 때 우리 당 우원식 의원 사무실에서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 정치'라는 문구가 쓰인 액자를 보았다"며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을 대변해야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을(乙), 즉 서민, 노동자, 여성, 장애인, 어린이와 노인, 지방 시민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서 당선인은 광양서초, 광양중, 순천고를 나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에서 촛불 집회과 임진강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년), 한상열 목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시국 사건을 변론했다. 여순사건 재심 변호사로서도 활동했고 문재인 대통령후보 법률인권 특보 등을 지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성년의 날 성년식 20일 오전 광주시 남구 광주향교 충효교육관에서 열린 제48회 성년의 날 성년식에서 광주향교 전교가 성년례 참가자에게 관례의식인 갓을 씌워주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화재나면 주민에 알려주고... 빈 주차공간 찾아 결제까지

광주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3곳 선정

광주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국토교통부 신규 시범사업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동구 동명동 스마트화재알림 서비스 등 3곳이 선정돼 국비 12억6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 85억원을 확보해 지난 4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전국에서 16곳을 선정했으며, 광주에선 동구와

북구, 광산구 등 3곳이 대상지로 확정됐다.

광주시 동구는 동명동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 스마트화재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화재안심마을을 조성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스마트화재 알림 시스템이 곧바로 감지해 주민과 주민 협의체, 관세센터, 소방서 등에 즉각 알려주고, 조기 진압과 대피를 유도한다.

광산구는 월곡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 고려인을 포함한 이주민의 언어 장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ICT)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북구는 전남대 인근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변의 주차가 가능한 공유주차면을 검색하고 결제도 할 수 있다. 주택 거주자는 자신의 유휴 주차면을 공유주차면으로 제공해 포인트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남도장터' 올 매출 24배 증가 68억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접촉) 소비 증가 등으로 '남도장터' 매출액이 올해 들어 4개월간 무려 2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남도미향의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 보다 50억원 증가한 2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가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의 올해 1~4월 매출액이 68억원에 육

박하며, 지난해 총 매출액(63억7000만원) 대비 4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4월 매출(2억9000만원)보다 23.5배 증가한 수치로, 지난 3월 모바일 앱(App) 오픈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 확산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NH물과 NS물, 공구마켓, 심공, 할인중독 등 26개 주요 온

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했으며, 31사단을 비롯 경기도 호남향우회, 전남도청과 유관기관 등 '코로나19' 피해농가 돕기 판촉행사를 온라인에서도 적극 추진해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가공식품업체와 농촌융복합업체, 축·수산물 생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업체와 입점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상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지난 4월말 기준 '남도장터'에는 전남 710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6593개 상품을 판매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